

담당부서 : 기업정책과

담당자 : 허성미 주무관

연락처 : 055-211-3394

경남도,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본격 시행

- 디자인컨설팅 91개사, 전국 최대 선정으로 국비 약 12억 원 지원 확정
- 상품화 지원 9개사 선정, 금형 설계 및 제작 지원 등

경상남도(도지사 박완수)와 한국디자인진흥원(경남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)이 2023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.

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① 제품 역량 분석과 전략 발굴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② 소재·부품 및 뿌리기술기업 신상품 개발을 위한 수요맞춤형 지원 ③ 제조·양산 컨설팅 ④ 금형 설계 및 제작을 지원하는 상품화 지원 ⑤ 마케팅 및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디자인 지원사업이다.

도는 지난 5월 디자인컨설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여, 181개사의 신청기업 중 서류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최대 규모인 91개사를 최종 선정하였다.

선정기업에는 기업과 제품의 역량을 분석해 취약점을 개선하고, 전략발굴을 위한 컨설팅비가 최대 2백만 원이 제공된다.

디자인컨설팅 사업이 완료되면 ▲수요 맞춤형 지원 ▲제조·양산 컨설팅 ▲마케팅 및 홍보 등 지원단계별 성과평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지원을 진행한다. 이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한 업체는 최대 6천 5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.

또한 상품화 지원사업에 지원한 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2차례 평가를 거쳐 지

난 8일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9개사를 최종 선정하였다.

상품화 지원사업은 제조혁신 전주기 지원의 후속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남 특화 사업으로, 금형설계 및 제작, 상품화 전문 컨설턴트 연계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기업에 최대 약 3천 3백만 원(수혜기업 부담금 30% 별도 부여)을 지원한다.

경남도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은 “이번 사업의 첫 단계인 디자인컨설팅 사업이 전국 최대 규모로 선정된 만큼 이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돼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정책과 허성미 주무관(055-211-33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